

17세기 의성김씨의 상주 이거와 정착

송 석 현*

- I. 머리말
- II. 상주의 지리적 특성과 사족 이거
- III. 개암 김우평 계열의 상주 이거와 확장
- IV. 서계 김담수 계열의 상주 이거와 정착
- V. 맺음말

국문초록

이 글에서는 16세기 후반에서 17세기에 걸쳐 상주에 정착한 의성김씨 두 계열의 이거 양상과 이후의 활동에 대해 규명하였다. 조선시대 상주는 영남대로와 낙동강이 경유하는 교통의 요지이다. 육로를 통하여 호서와 교류하였고, 낙동강을 통하여 경상도 각 지역과 교류하였다. 이로 인하여 상주는 다양한 성격의 사족과 소통할 수 있었으며 회통성과 융합성을 특징으로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성격은 상주에서도 낙동강 연안의 지역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낙동강을 통하여 북쪽으로는 안동권, 남쪽으로는 성주권, 진주권, 경주권 과도 교류를 하였다. 이 지역에 정착한 사족들은 강을 통하여 상주로 이거하여 정착하였고, 강을 통하여 교류를 확대하였다. 이러한 양상을 상

* 경북대학교 강사 / 1modowon@hanmail.net

주 강안 지역에 정착한 사족 가운데 의성김씨의 활동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상주 의성김씨는 김우평 계열과 김담수 계열이 있으며 이들은 성주 출신으로 가까운 친족 사이이자 학문적으로는 조식에 연원을 두면서도 이황의 영향도 수용하는 공통점이 있었다. 하지만 상주에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와 이주 시기에는 차이가 있었다. 김우평은 혼인을 통해 형성된 처가의 기반으로 안정적인 터전과 교유 관계를 마련하였으며 상주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었다. 김담수는 선영을 기반으로 활동하며 거주 시기도 짧았다. 따라서 상주의 기반과 교유 관계는 한계가 있었다.

김우평과 김담수의 후손들은 선대의 기반과 교유 관계를 계승하면서 자신들의 방법으로 확장하였다. 김우평 계열은 임진왜란으로 인한 피난 생활 이후 경북 북부 지역으로 활동의 중심지가 이동하며 상주의 기반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다시 복구하고 상주 사족으로서 정착할 수 있었으나 교유관계와 위상의 확장에는 여러 한계가 있었다. 반면 김담수 계열은 선대의 미약한 기반을 학문적 사승관계와 혼인을 통하여 강화하였고 상주 사족 사회로 교유 관계를 확장할 수 있었다.

◆ 주제어

김우평, 김담수, 상주, 의성김씨, 교유, 혼인, 강안(江岸)

I. 머리말

조선 후기 사족에 관한 연구는 다방면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가운데 사족들의 교유에 대한 연구는 사족들의 활동과 생활을 가장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교유는 학문, 혼인, 관직 등 다양한 요소를 통해 이루어지고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한 세대에서 이루어진 사족들의 교유 관계는 다양한 형태로 계승, 확대되기도 한다.¹⁾ 조선시대 교유의 양상은 관직과 같은 특별한 요인이 작용하지 않는 이상 거주, 활동 지역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기 어렵다.

조선후기 봉당의 영향력이 커지며 학문적 정체성이 강조되었다. 영남에서는 퇴계 이황과 남명 조식을 중심으로 嶺南學派의 형성과 변화를 바라보는 관점이 있었다.²⁾ 이후 이원적인 구분에서 벗어나 다양한 학문적 정체성을 가진 사족들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고, 양측의 학문을 함께 수용하며 독특한 학문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江岸學이라는 시각도 등장하였다.³⁾

강안학의 관점에서 볼 때 사족 교류의 핵심은 강, 곧 하천이다. 하천은 지역을 구분하는 경계로서 단절의 기능도 하지만 수로를 통한 소통을 상징하기도 한다. 특히 17세기 초반 寒岡 鄭述(1543~ 1620)는 성주를 기반으로 낙동강을 통하여 교류하며 학문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전파하였다. 이러한 관점은 조선시대 사족들의 교유에 대한 분석에서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 특히 영남에서 낙동강 연안의 지역은 강을 통한 교류라는 면을 빼놓고는 생각할 수 없으며, 이는 낙동강 주변의 지류로 확대되기도 한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영남에서 낙동강을 통한 교류를 상징하는 지역은 상주라고 할 수 있다. 낙동강이라는 이름 자체가 상주를 부르는 洛

1) 김정운, 「17세기 예안 사족 김령의 교유 양상」, 『조선시대사학보』 70, 2014.

2) 이수건, 『嶺南士林派의 形成과 展開』, 일조각, 1995.

3) 정우락, 「강안학과 고령 유학에 대한 시론」, 『퇴계학과 한국문화』 43, 2008; 홍원식 외, 『낙중학:조선시대 낙동강 중류 지역의 유학』, 계명대학교 출판부, 2012.

陽의 동쪽이라는 의미라 한다.⁴⁾ 하지만 지금까지 강안학 연구에서 상주권에 대한 연구는 다른 지역에 견주어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자료의 부족 등 다양한 요인이 있겠지만 강안학 연구의 핵심인 한강 정구의 영향력이 영남의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분명하지 않다는 것도 하나의 이유라 생각된다. 하지만 강을 통한 교류와 독창적인 지역 정체성의 확립이라는 의미에서 상주는 더욱 주목해야 하는 지역이라고 생각한다.

16세기 후반 정구와 그 문인들을 중심으로 성리학에 대한 이해와 적용이라는 학문적 면에서 영남의 두 주류인 이황과 조식의 영향을 통합하여 강안학이라 부를 수 있는 일면을 이루었다. 17세기 전반의 상주는 다양한 성격을 함축한 사족들의 정착과 이주가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다양한 학문의 융합과 함께 서로 다른 정치적 입장도 포용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족의 교류는 교통망을 통해 이루어진다. 상주는 영남대로가 지나는 영남의 중요 교통로이자 낙동강을 통해 영남의 남북으로 이어지는 지역이다. 육로를 통해서만 인접한 호서지역의 사족들이 이주하고 교류하였으며, 강을 통해서만 영남 내부의 다양한 성격을 지닌 사족들과 교류할 수 있었다.

영남에서는 퇴계학을 주도하는 인물에 따라 성리학적 체계모니를 선도하는 지역이 변화하였다. 17세기 초반 정구와 장현광을 거쳐 정경세, 이현일을 거치며 영남학파의 정체성과 주류가 변화했다.⁵⁾

이 글에서는 상주권 사족들의 다양한 교류 가운데 강을 통한 이주와 교류 양상을 상주의 의성김씨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상주의 의성김씨는 개암 金宇宏(1524~1590) 계열과 서계 金聘壽(1535~1603) 계열로 나뉜다. 김우평과 김담수는 성주 출신으로 가까운 친족 관계이면서 강안학의 중심인 정구와도 친밀한 관계라는 점을 공유하고 있다. 김

4) 상주의 별칭은 商山, 上洛, 洛陽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 『新增東國輿地勝覽』, 「尙州牧」, <山川>에서 낙동강은 주 동쪽 36리에 있으며 여기서부터 바다에 들어가기까지 비록 지역에 따라 이름은 다르나 총괄하여 낙동강이라고 부른다고 하였다. “自此至入海, 雖隨地異名, 而總稱洛東江”

5) 김학수, 「17세기 嶺南學派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8.

우평과 김담수가 16세기 후반 상주에 정착한 이후 후손들은 상주의 기반을 유지하면서도 강을 통하여 안동 등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를 확대하였고, 이에 따라 교유 관계도 변화하는 모습이 보인다. 따라서 17세기 초반 상주에서 강을 통한 교유의 양상을 잘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된다.

두 계열의 상주 정착과 다른 지역으로의 확대, 그리고 교유의 양상이 시기 인물들의 활동과 혼인 관계 등을 통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 부족한 자료와 일부 가문에 한정되었다는 한계가 있으나 향후 상주권 사족들의 연구에 있어 강을 통한 교류의 일면을 제시한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II. 상주의 지리적 특성과 사족 이거

1. 상주의 지리적 특징

상주지역은 고대부터 邑治와 가까운 靑里, 洛東 지역의 주변으로 사람들이 정착하였다. 신라에 의해 사벌국이 병합되어 군현으로 편성된 이후에도 행정적, 군사적 거점으로 중요시되어 上州, 上洛君으로 편제되었다. 고려에 들어와서 尙州牧으로 속군 7개, 속현 17개, 부곡 17개, 영읍 2개가 소속되며 경주와 함께 영남의 중심이 되었다.⁶⁾ 고려말 상주의 행정권 범위는 현재의 옥천 · 영동 · 보은 등 충청도 일부와 의성, 문경 등의 일부를 포함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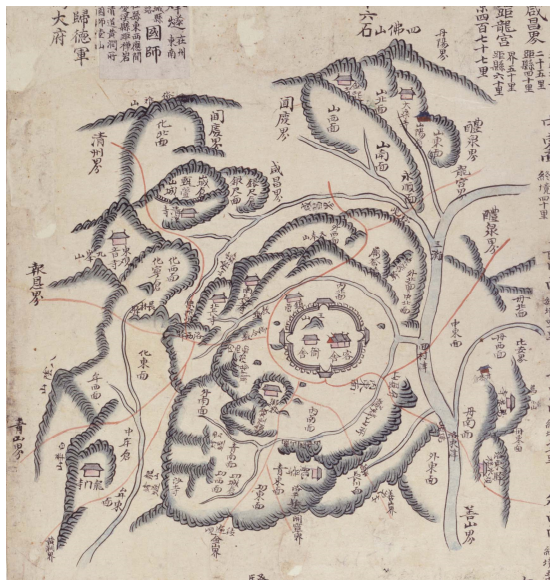
조선이 건국되면서 경주에 있던 감영이 상주에 설치되어 1408년(태종 8)부터 경상감사가 상주목사를 겸하게 되었다. 지방통치기구의 정비에 따라 1413년(태종 13) 전국을 8도 체제로 정비하면서 상주목 관할이었던 옥천 · 황간 · 영동 · 청산 · 보은을 분리하여 충청도로 내속시켰다. 그럼에도 상주는 7개의 속현과 任內의 하나인 부곡이 셋이나 존재하였

6) 『新增東國輿地勝覽』 권18, 「尙州牧」.

고, 속현의 하나인 功城縣까지도 平安이란 부곡 1개를 거느리고 있는 大邑이자 영남의 중심이었다. 18세기 제작된 <海東地圖>의 상주지역을 보면 조선 시대 상주목의 관할 구역은 현재의 상주시 전체와 의성군 단밀면과 단북면, 문경시 산양면, 영순면 일부, 산북면 대부분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지역이었다.

조선시대 상주는 영남의 북부에 위치하여

영남대로와 낙동강이 통과하는 교통의 요지이자 행정의 중심지였다. 이 중환은 다음과 같이 상주의 지리적 특징을 설명하였다.



<해동지도, 규장각 古大4709-41-v.1-8>

상주의 다른 명칭은 낙양(洛陽)이며, 조령 밑에 있는 하나의 큰 도회지로서 산이 웅장하고 들이 넓다. 북쪽으로는 조령과 가까워 충청도, 경기도와 통하고, 동쪽으로는 낙동강에 임하여 김해, 동래와 통한다. 운반하는 말과 짐을 실은 배가 남쪽과 북쪽에서 물길과 육로로 모여드는데, 이것은 무역하기에 편리한 까닭이다.⁷⁾

지형적으로는 상주의 읍치를 중심으로 북쪽과 서쪽으로는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의 큰 산들로 둘러싸여 충청도 지역과 경계를 접하고 있고, 동쪽으로는 낙동강이 흘러들어와 남쪽으로 흘러가며 상주의 하천들이 합류하여 경상도의 군현들과 소통하는 형세이다. 따라서 상주의 서쪽 지역

7) 『擇里志』, 「卜居總論」,

은 육로를 통해 호서지역, 더 멀리는 경기지역과의 교류가 활발하였고, 동쪽의 낙동강 접경지역은 영남 북부의 안동권과 영남 남부의 경주권, 진주권과의 교류가 활발하였다.

이러한 구분을 행정적으로 분류하면 化寧, 中牟 지역이 전자에 해당하고, 山陽, 永順, 梅湖, 洛東, 中東, 丹密 지역이 후자인 강안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상주의 중심인 읍치와 남쪽에 있는 靑里, 功成은 양쪽을 모두 융합하는 성격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 후기 속현들이 폐지되는 상황에서 상주목의 화령현 · 중모현 · 산양현 · 단밀현은 속현의 성격을 유지하는 것 역시 각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지형적 특성은 상주에서 생활하는 사족들의 교유와 학문, 정치적 성향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상주의 대표적인 서인계 사족 가문과 서원은 읍치의 서쪽인 화령지역을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⁸⁾ 이와는 달리 동쪽 지역은 지역적으로 가깝고 낙동강을 통한 교류가 가능한 안동권, 성주권과의 교류가 두드러진다. 이러한 특성은 각 지역에 거주하는 사족들의 활동과 교유에도 영향을 미쳐 상주의 사족들은 영남의 다른 지역과 비교한다면 호서, 경기와의 교류가 활발하였다.

다양한 지역과의 교류를 바탕으로 형성된 상주의 학풍에 대해서는 융합, 회통의 경향을 강조하기도 한다. 퇴계학과 남명학이 지역의 학문을 주도하는 것이 아닌 양명학의 영향이 강하고, 율곡학이나 화담학과와의 융통을 지향하는 학자들이 지역의 학풍을 주도하였다. 나아가 율곡계열이 지역 학맥을 형성하는 등 다양한 학문 경향이 병존하였다.⁹⁾

상주에서 낙동강은 중요한 교통로이자 지역적 특성을 구분하는 강이라고 할 수 있다. 낙동강은 지류들이 유입하여 형성되며 상주에서도 많은 하천들이 합류하며 큰 강을 이룬다. 상주에서는 북쪽에서부터 산양

8) 상주의 대표적인 서인계 사족 가문인 창녕성씨의 기반은 읍치의 서쪽인 화령이 중심이고, 서인계 서원인 홍암서원, 서산서원도 주변에 분포하고 있다.

9) 김성운, 「영남의 유교문화권과 지역학과의 전개-안동권·상주권·성주권을 통해 본 영남학과 사육체계의 지역적 특징과 그 전승과정에 나타난 문화 양상을 중심으로-」, 『朝鮮時代史學報』 37, 2006.

지역의 山陽川, 함창과 영순 지역을 거치는 潁水, 상주 읍치에서 北川과 합류하는 屏城川,¹⁰⁾ 낙동 지역의 長川, 군위와 의성을 거치는 渭水가 차례로 낙동강과 합류한다. 낙동강을 넘기 위한 나루 역시 북쪽에서부터 三灘津, 檜洞津, 飛鸞津, 竹岩津, 洛東津 등이 있다.

낙동강에 대해 상주 사족들은 ‘낙동강의 수원은 안동 태백산 潢池에서 시작되나 수백 리를 흘러 상주의 경계에 들어오면서부터 낙동강이라 불리니 上洛으로 들어와서 동쪽으로 흐르기 때문’이라고 하여 상주가 실질적인 본류라는 인식을 보여준다.¹¹⁾ 그리고 낙동강은 교유와 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후술하겠지만 최초의 서원을 낙동강 옆에 건립한 것이나 ‘洛江詩會’와 같은 모임이 지속된 것에서 이러한 면모가 잘 드러난다. 상주에서 낙동강은 영남의 군현들과 교류하는 소통의 창구이자 육로를 중심으로 경기, 호서와의 교류가 활발한 서북지역과의 차이를 만들어 내기도 한다.

2. 16세기 사족의 이거 양상

조선 중기 이후 중앙과 향촌 사회에서 사족들이 지배층으로 성장하였다. 이는 상주지역에서도 이루어졌으나 15세기까지 상주의 土城土族은 상산김씨 계열에 불과하였다. 영남의 다른 군현들과 비교해도 군현의 규모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다. 상주박씨, 상주주씨, 상주황씨는 사족으로 성장하였으나 상산김씨와는 달리 상주에 정착하지 못하거나 활동이 미비하였다. 따라서 상주는 다른 지역에서 옮겨 온 사족이 많았다.¹²⁾

15세기 이후 다른 군현에서 상주로 이주한 사족들은 順天金氏, 豊山

10) 『商山誌』에는 남천(南川), 『輿地圖書』에는 이수(伊水)로 기록되어 있다. 상주 읍치 남쪽의 여러 하천을 합한 후에 병성마을 앞에서 낙동강에 합류하기 때문에 병성천이라고 부른 것으로 보인다.

11) 『商山誌』 「山川」.

12) 李樹健, 『嶺南士林派의 形成』, 영남대학교 출판부, 1979, 92~95쪽 참조.

金氏, 豐壤趙氏, 東萊鄭氏, 長水黃氏, 羅州丁氏, 南陽洪氏, 淸州韓氏, 晉陽鄭氏, 晉陽姜氏, 光州盧氏, 興陽李氏, 永山金氏, 礪山宋氏, 沃川全氏, 信川康氏 등이다.¹³⁾

이들의 이주는 상주의 토성사족인 상산김씨와의 혼인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혼인, 학문을 통해 관계망을 형성하고 계를 통하여 결속하여 향촌 활동을 주도하였다. 임진왜란 이후에는 의병 활동을 주도한 洛社稷 사족들이 향안의 중수, 의료기관인 存愛院과 상주 최초의 서원인 道南書院의 건립을 주도하는 등 상주 사족 사회의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낙사계 사족들은 읍치를 중심으로 그 주변인 청리, 공성, 낙동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혼인, 학문을 통한 증척적인 관계를 대를 이어 형성하였다.¹⁴⁾

학문적으로는 16세기 중반 탄수 李延慶(1484~1548) 연원의 盧守愼(1515~1590) · 康復誠(1550~1634) 계열, 학풍에 있어 남명 · 화담학과와 가까웠던 金範(1512~1566) 계열, 趙光祖(1482~1519)에 연원을 둔 金顒 · 金冲(1513~ 1572) 계열, 이황 · 조식과 두루 소통했던 金彦健(1511~1571) · 金覺(1536~1610) 계열 등이 병존하였다.¹⁵⁾ 하지만 유성룡이 상주 목사로 부임하여 학문을 진작시키고, 사제 관계를 형성한 鄭經世(1563~1633), 李鼎(1558~1648), 李竣(1560~ 1635) 등이 관직에 진출하며 17세기 초반에는 향촌 사회의 활동을 서애계가 주도하게 되었다.

17세기 이후에도 사족들의 유입이 이어졌다. 이들 역시 혼인을 통한 정착 방식이 주를 이루었으나, 선대에 마련한 터전을 기반으로 하여 이거하는 경우도 있었다. 정착의 기반은 상주 읍치 주변을 벗어나 상주목전 지역으로 확장되었고, 특히 낙동강을 인접한 지역으로 이거하는 경우가 주목된다. 이 시기에 상주로 이거한 가문을 살펴보면 安東權氏, 安東金氏, 義城金氏, 昌寧成氏, 慶州孫氏, 昌寧曹氏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창

13) 『商山誌』 「祖先」, 「人物」.

14) 송석현, 「17세기 상주지역 사족의 동향」, 『嶺南學』 27, 2015, 328~333쪽.

15) 김학수, 앞의 논문, 2008.

녕성씨를 제외하면 낙동강과 그 주변의 하천 지역에 자리 잡는 경향을 보인다.

창녕성씨는 成灋(1556~1620)이 임진왜란 이후 처가인 남양홍씨를 따라 상주로 이거하였다. 성람은 이이·성혼 문하로 상주 화령과 접한 보은 출신이었으나 처가의 기반과 정경세와의 친분을 통해 상주 사족으로 정착할 수 있었다. 의학에도 뛰어난 성람은 상주로 이거한 이후 의국인 존애원의 운영에 참여하면서 낙사계 사족들과 교유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창녕성씨는 상주에 기반을 확대할 수 있었다.

창녕조씨는 曹友仁(1561~1625)이 상주 매호리에 정착하면서 입향하였다. 조우인은 1621년 제술관으로 있으면서 지은 시가 광해군의 잘못을 풍자하였다는 무고로 인해 친국을 당하고 감옥에 갇혔다.¹⁶⁾ 1623년 인조반정 이후 석방되자 사벌지역의 매호리에 梅湖精舍를 세우고 「梅湖別曲」을 지으며 은거하였다.

경주손씨는 예안의 孫塘이 정경세의 종숙부인 정국성의 딸과 혼인을 하며 상주 울리에 터전을 마련할 수 있었다. 손당은 존애원 운영과 도남서원의 건립에도 참여하였다. 그러나 경주손씨의 상주 기반은 손당의 선대인 손등 시기에 마련되었다. 손등이 상주의 호장 박시우의 딸과 혼인을 하며 처가인 상주의 중동에 거주하였고 이후 후손들이 분화하여 영남의 여러 지역으로 이주하였다. 강안 지역인 중동과 단밀에는 경주손씨의 묘역이 계속 조성되었고, 18세기에는 재사인 鼎谷齋舍가 건립되는 것으로 보아 그 기반은 계속 유지되었다고 생각된다. 손등은 『상산지』 「인물」조에도 경주손씨로는 처음으로 등재되어 입향조의 위상을 갖고 있다.¹⁷⁾

안동권씨와 안동김씨는 17세기 중반 權垵와 金楷(1633~ 1716)가 안동에서 산양으로 이거하였다. 의성김씨는 16세기 말 성주에서 개암 金宇宏(1524~1590)과 서계 金聘壽(1535~ 1603)가 중동 지역으로 이거

16) 『澤堂集』, 별집 6권, 「墓誌」, <右副承旨梅湖曹公墓誌銘 并序>.

17) 송석현, 「경주손씨의 상주 정착과 손만웅의 활동」, 『한국서원학보』 18, 2024, 239쪽.

하며 기반을 마련하였다.¹⁸⁾

상주의 사족들은 16세기부터 형성되었으며 혼인 등의 관계망을 통해 지속적으로 유입되었다. 임진왜란을 전후하여 상주에 입향한 사족들은 안동김씨, 안동권씨, 의성김씨 등이 대표적이며 이들은 강을 통한 교류를 기반으로 유입되어 낙동강 주변의 지역에 터전을 마련하였다. 정착한 이후에도 출신 지역과의 교류는 계속되어 산양 지역에 정착한 안동김씨, 안동권씨는 그 기반이 남아 있는 안동권과의 교류가 활발하였고, 중동 지역에 이거한 의성김씨는 성주권과의 교류가 활발하였다.

의성김씨는 낙동강과 인접한 중동 지역에 거주하며 강을 통한 교류가 특히 두드러졌다. 성주의 정구가 강을 통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였으나 그 중심은 성주권 남쪽의 낙동강 중 · 하류 지역이었다.¹⁹⁾ 마찬가지로 의성김씨도 합천, 진주 등의 지역 활동에 대해서만 주목하였다. 그러나 16세기 후반 의성김씨는 낙동강 북쪽으로 활동 영역을 확장하여 상주를 거쳐 안동권의 예안, 내성, 영주 지역으로 교류가 확대되었다. 따라서 상주에 정착한 의성김씨의 활동은 강안학의 확장이라는 점과 상주 지역 사족들의 강을 통한 교류의 일면을 확인할 수 있다는 면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상주의 의성김씨는 김우평과 김담수 두 계열이 존재한다. 김우평의 5대조 金宗師가 김담수의 고조로 두 사람은 가까운 친척이며, 성주에서 상주로 옮겨왔다는 공통점이 있다. 김우평은 16세기 중반 혼인을 통한 기반으로 이거하였고, 김담수는 16세기 후반에 선영을 기반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는 김우평과 김담수 및 후손들이 상주 사족으로 정착하기 위한 활동에서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

18) 『商山誌』 「祖先」, 「人物」.

19) 정우락 외, 『강안학이란 무엇인가』, 역락, 2003.

Ⅲ. 개암 김우평 계열의 상주 이거와 확장

1. 혼인을 통한 이거

김우평과 김담수 가운데 먼저 상주에 정착한 인물은 김우평이다. 김우평의 자는 敬夫이고, 부친은 七峯 金希參(1497~ 1560), 모친은 청주곽씨 郭人和의 딸로 1524년 경상도 성주 沙月里에서 태어났다. 형은 金宇弘, 동생은 金宇容, 金宇顒(1540~1603)이다.

<의성김씨 김우평 계열의 계보>

致精-希參-宇弘(伊溪, 광주목사)

⇒宇宏-得可-璞-秋任-聲直(승지 조우인의 딸)

⇒聲廓(정랑 권성오의 딸)

⇒聲翼(교관 朴敏行的 딸, 21세 요절)

⇒聲弼(현감 南烜의 딸)

⇒秋吉-聲厚(김종연의 딸, 김륵 후손)

⇒聲久(권목의 딸, 권벌 후손)

⇒聲裕(권홍의 딸, 권벌 후손)

⇒郭再周

⇒金宗灝

⇒黃昌達

⇒全省三

⇒秋一

⇒李曄

⇒李一奎(李垵의 장남)

⇒權樞經

⇒達可

⇒柳成龜

⇒宇容-孝可(出)

⇒宇顒-孝可(入)

⇒李應命

김우평은 1562년 상주 중동의 開巖 주변에 별서를 짓고 호를 ‘개암’으로 삼았다. 1566년 문과에 합격한 이후 홍문관 부제학, 청송부사 등의 관직을 역임하고 물러나면서 개암으로 돌아왔다. 1590년 개암의 별서에서 죽고 개암 동쪽에 장사를 지냈다.²⁰⁾

김우평이 상주로 이거할 수 있는 연고는 처가였다.²¹⁾ 1542년 남양홍씨 洪胤崔의 딸과 혼인을 하였다. 홍윤취는 찰방을 지냈으며 조부는 현감을 지낸 홍영효, 부친은 洪頴, 모친은 청송심씨이다. 창석본 『상산지』 인물조와 상주의 향안인 『商山鄉彥錄』에 등재되어 있다.

홍윤취의 아들 洪約昌(1535~1592)은 상주에서 태어나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정경세, 조정 등과 함께 황령사에서 의병을 일으켰으나 1592년 외남에서 공성으로 가는 길목인 안령에서 전투 중 전사하였다. 홍윤취의 딸들은 김우평과 풍양조씨 趙光憲과 혼인을 하였다. 조광현의 아들이 黔澗 趙靖(1555~1636)과 可畦 趙翊으로 김우평은 이들 형제와 동서 관계이다.

홍윤취에 대해서는 남겨진 기록이 적고, 사위인 김우평과 조광현의 묘도문자에서도 그 세계나 활동에 대한 설명이 없어 자세한 활동을 파악할 수는 없다. 오히려 주목되는 것은 홍윤취의 모친이 寓菴 洪彦忠(1473~1508)의 딸인 부림홍씨라는 것이다. 부림홍씨는 상주 산양 지역의 사족 가문으로 홍언충은 무과에 합격하고 관직을 지내던 중 사화로 유배되었고, 부친인 洪貴達(1438~1504)은 이조판서, 좌참찬 등을 역임하였으나 연산군에 의해 유배되던 중 교살되었다. 중앙에서 관직을 지낸 사림과 인물과의 혼인은 남양홍씨에게 있어 상주의 중요한 기반이 되었을 것이며 이는 사위인 김우평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조광현의 아들인 조정은 본관이 풍양으로 자는 安中이며 동생인 조익과 임진왜란 의병 활동, 도남서원 건립 등에 참여하였다. 풍양조씨는 『상산지』에 따르면 고려말 趙玄佐(1332~1404)이 상산김씨 김득배와의

20) 『開巖集』, 「年譜」.

21) 『蒼石集』 권16, 「墓碣」, <通政大夫弘文館副提學知製敎兼經筵參贊官春秋館修撰官金公墓碣銘>, ‘以鸞鳳之緣來尙州, 開別墅於洛江開巖之上’

혼인을 통해 입향하였다. 선대에 서울로 옮겼으나 조광현 대에 다시 상주로 돌아오면서 홍윤취의 연고가 있는 중동 지역에 자리 잡은 것으로 보인다.²²⁾

16세기 후반 상주 사족 사회를 주도하던 낙사계 사족들이 대부분 유성룡의 제자로 인식되는 반면 조정은 김성일의 형인 김극일의 사위로 김성일의 제자로 인식되고 있었다. 상주 내 지역적 기반과 학문적 연원에서 다른 면이 있었고, 이후 조정은 정경세의 동료와 문인들이 중심이 되어 추진된 정경세의 도남서원 추향을 향촌 내에서 반대하는 여론을 대표하는 인물로 여겨지기도 하였다.²³⁾

김우평에게 있어 남양홍씨와 혼인은 상주의 기반을 확보하는 동시에 상주 사족들과 교유를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장인을 통해 부림홍씨와 이어지고, 동서인 조정은 상주 사족들과의 교유뿐만 아니라 안동권 사족들과의 교유에서도 영향을 준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낙사계 사족과는 다른 계열이 교유의 중심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김우평의 상주에서의 활동에 대해서는 사료가 많지 않아 자세히 알 수 없다. 문집인 『개암집』에 실려 있는 일부 글들과 향촌 자료, 그리고 자손들의 혼인 관계를 통해 유추할 뿐이다. 문집에 실려 있는 시는 상주에서의 활동과 관련된 것이 대부분이나 전체 숫자가 적고, 조식, 유중영, 윤희춘, 오운, 노진을 위해 지은 만시가 실려 있다. 소량의 편지와 제문은 스승이자 선배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황, 노수신, 윤희춘에게 보낸 것이다.

묘도문자는 발문 1편과 墓文 1편이 실려 있는데 모두 처가와 관련 있는 상주 인물들이다. 장인인 홍윤취의 묘문과 장모의 부친인 홍언충의 문집 발문이다. 특히 홍언충의 문집인 『우암집』은 김우평이 간행하였다. 김우평은 충청도 관찰사로 재임하던 1582년 장모 남양홍씨의 간곡한 부

22) 송석현, 앞의 논문, 2015. 『開巖集』 연보에는 “巖在尙州治之東洛江上”라고 하여 개암의 위치를 상주 치소의 동쪽 낙동강변이라고 하였고, 『商山誌』에서 중동의 우암(牛巖)에 대해 조정의 구업(舊業)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

23) 『溪巖日錄』, 「을해 10월 1일」

탁으로 수집된 홍언충의 글을 바탕으로 자신이 발문을 붙이고, 청주 목사 金仲老에게 일을 맡겨서 『우암집』을 간행하였다.²⁴⁾

김우평에게 처가는 상주로 이거하는 고리이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김우평이 자리 잡은 개암이 있는 중동면이 처가의 터전으로 보이며, 혼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상속을 하여 도움이 되었다.²⁵⁾ 장인 홍윤취는 전처인 남원양씨 사이에 아들 세 명이 있었으나 모두 후사가 없었고, 후처인 부림홍씨와는 아들이 없고 딸만 3명이었다. 홍씨의 시양은 막내 사위인 조광현의 아들 조익이 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후 7촌 조카인 홍약창을 후사로 삼았다. 결국 만사위이자 문과에 합격하여 관직 생활을 하고 있는 김우평이 처가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김우평은 자신에게 있어 상주 기반의 중요한 인물인 장인의 묘도문자 작성과 장모 부친의 문집 간행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으로 생각된다.

김우평은 상주에 정착한 이후 향촌 활동에도 참여하였다. 1565년(명종 20) 문정대비가 사망하자 전국의 유생들이 승려 普雨(1509~ 1565)의 참형을 주장하는 상소를 끊임없이 올렸다. 1년 동안 『명종실록』에서 확인되는 유생 상소만 16건에 이르고, 연소는 66차례나 행해졌다고 한다.²⁶⁾ 김우평은 이 상소문을 직접 작성하고 疏頭로서 300여 명에 이르는 경상도 유생을 대표하고 있다.²⁷⁾

이후 향촌에서의 활동 모습이 보이지 않는데 이는 이듬해인 1566년 문과에 합격하며 관직 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1585년 상주 개암으로 돌아올 때까지 일시적으로 파직되기도 하였으나 20여 년간 관직이 끊이지 않았다. 따라서 향촌에서의 활동보다는 중앙 조정과 지방 수령으로서의 활동에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

16세기 후반 상주 남촌 사족들이 계의 조직, 과거 합격 등을 통해 결

24) 『開巖集』 권3, 「跋」, <寓菴集跋>.

25) 『開巖集』, 「年譜」에는 1566년 문과에 합격하고 고향에 돌아가서 장모에게 인사를 하니 따로 별급을 후하게 내려주었으나 사양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26) 설석규, 『조선시대 유생상소와 공론정치』, 선인, 2002, 129쪽.

27) 『明宗實錄』 권31, 명종 20년 8월 4일 무진; 『開巖集』 권3, 「雜著」, <西行日記> 을축 7월 24일, “二十三日晴, 齊會于司馬所, 錄疏下姓名三百人, 疏頭金敬夫也”

집하며 활동 영역을 확대하는 상황에서 김우평의 지속적인 관직 생활은 그들과 학문, 혼인 등의 교류를 이어가기 어렵게 한 것으로 생각된다. 김우평의 상주 사족과의 교류는 『개암집』의 부록에서 일부 나타난다. 김우평의 죽음에 정경세, 권문해, 고상안, 오운, 김우옹이 만사를 지어 보냈다. 이 가운데 오운과 동생인 김우옹은 선대 기반인 성주권 인물들이고 정경세, 권문해, 고상안은 상주권 인물들이다.²⁸⁾ 상주를 대표하는 정경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권문해, 고상안은 모두 경북 북부 지역의 인물이다.

자식들의 혼인은 더욱 안동권 사족들과 결합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이황의 학문적 영향과 함께 그의 제자들이 본격적으로 관직에 진출하며 이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동시에 김우평의 거주지인 상주 중동과 안동권의 풍산, 예안 지역은 낙동강으로 이어져 교류가 편하다는 점도 작용하였을 것이다.

김우평은 성주 출신으로 혼인을 통하여 상주로 이거하며 기반을 확보할 수 있었고, 낙동강을 통한 교류와 관직 생활은 상주를 벗어나 영남 북부까지 교류 관계가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의 활동 기반과 교류 관계는 후손들에게 전승되었고, 임진왜란이라는 전쟁을 겪으며 더욱 다양하게 변하게 된다.

2. 거주지 이동과 상주 기반의 정비

김우평이 형성한 상주의 기반과 교류 관계는 그의 후손들에게 전승되고 확장되었으며 이 역시 낙동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인다. 그 양상을 후손들의 거주지 이전과 혼인 관계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김우평은 처 남양홍씨와의 사이에서 2남 1녀를 두었다. 장남 金得可(1547~1591)의 자는 大中 호는 柱峯으로 진성이씨 李憑과 혼인하였다.

28) 권문해는 예천 출신이지만 『草間日記』를 보면 처가인 상주에 기반이 있으며 상주 사족들의 계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이빙은 이황의 숙부인 松齋 李堦의 후손이다. 둘째 金達可는 자가 士行으로 충주박씨와 혼인하였고, 딸은 풍산유씨 柳成龜와 혼인하였다.

임진왜란이 일어나며 김우평이 경영한 상주 개암의 터전은 한동안 버려지게 되었다. 김득가의 아들인 金璫(1568~1651)은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어머니 진성이씨를 모시고 외가인 예안의 도산면으로 잠시 피신했다가 봉화 용담으로 옮겼다. 봉화는 이모부 풍천임씨 龍潭 任屹(1557~1620)이 세거하던 지역이었다. 임진왜란이 끝나자 장남인 金秋任(1592~1654)은 상주로 돌아가고 차남인 金秋吉(1603~1686)은 봉화에 남아 용담의 건너편에 자리를 잡으며 해저마을 의성김씨의 기틀을 마련하였다.²⁹⁾

김우평의 후손들은 혼인을 통하여 근거지를 경북 북부인 안동, 예안, 영주 등지로 확장하였다. 김울은 봉화금씨 琴怡의 딸과 혼인을 하였고, 김울의 첫째 아들인 김추임은 풍산유씨 柳禔의 딸과 혼인하였는데 유기는 유성룡의 형인 유운룡의 손자이다. 둘째 김추길은 전주유씨와 혼인을 하였다. 딸들은 진성이씨 李攄, 홍양이씨 李一圭, 안동권씨 權樞經과 혼인하였다.

김우평의 손자들이 영남 북부권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교유 관계가 형성된 것은 임진왜란으로 인한 피란이 크게 작용하였다. 김울은 모친의 고향인 예안에서 피란 생활을 하며 17세기 초반까지 활동하였다. 김울은 조부 김우평의 막내 동생인 金字顒(1540~1603)이 안동부사로 재직하며 건립한 三溪書院의 원장을 지냈고,³⁰⁾ 예안의 안동김씨 金中淸(1567~1629)가 교류하며 모친의 묘갈을 부탁하기도 하였다.

김울과 김추임, 김추길의 활동은 김령의 『계암일록』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³¹⁾ 김울은 김령을 자주 방문하고, 특히 유성룡의 아들인 柳軫과 함께 어울리는 모습이 보인다. 김추임은 상주를 왕복하거나 매제인 이일규

29) 김미영, 『송정처사의 삶을 살다, 봉화 팔오현 김성구 중가』, 경북대학교 출판부, 2019, 26쪽.

30) 『溪巖日錄』 계축년(1613) 1월 4일.

31) 김령의 고모부인 이빙이 김울의 장인이다.

와 함께 김령을 방문하는 등 상주와의 연고가 보인다. 김추길은 김령의 아들과 자주 어울리며 함께 도산서원 재임으로 선출되거나, 上齋를 맡는 등 안동권에 정착했음을 알 수 있다.³²⁾

상주 기반의 재정비는 전쟁이 끝나고도 30여 년이 지난 후 김추임에 의해 이루어졌다. 김율은 첫째 아들인 김추임에게 먼저 돌아가서 옛 터전을 수습할 것을 명하였고, 김추임은 동문 외곽에 정착했다가 중동 개암으로 옮겨 선대의 기반을 정비하였다.³³⁾ 김추임이 개암 지역의 풍광을 읊은 『開湖雜詠』의 서문에는 상주로 복귀한 당시의 모습이 다음과 같이 묘사되어 있다.

선생[김우평]께서 세상을 떠나시고 곧 섬나라 오랑캐의 난이 일어나 자손이 강좌(江左)를 떠돌며 40여 년이나 돌아오지 못했다. 옛 정사는 변하여 거친 풀에 평과 토끼가 번갈아 밟은 자취만 남고, 갈매기와 백로는 강산이 빛을 잃고 풍월만 맑은 것을 서로 조상하게 되었다. 나는 전쟁 후에 태어나 오고 가면서 이를 보고 마음이 애통하였다. 갑술년(1634)에 비로소 이곳으로 오게 되어 옛터에 풀집을 짓고 자하여 물새에게 거듭 맹세하여 옛날의 자취를 이으려 하였다. 다만 전쟁 후 가엽이 가난하여 종들조차 옛날의 종이 아니니 산수(山水)를 맡은들 누가 선대가 노닌 자취를 이루겠는가?³⁴⁾

전쟁 후 황폐해진 터전을 정비하고 김추임은 개암에 거처를 마련하며 거실을 畏棲라 이름 짓고 호로 삼았다. 이후 김추임 계열은 상주를 기반으로 활동하게 되고, 경북 북부의 터전은 김추길 계열의 기반이 된다. 하지만 김추임은 죽기 직전에 동생과 아들, 매제 등이 모인 자리에서 상주의 터전을 동생에게도 상속하며 안동 내성의 터전에서 나오는 수입은 제수로 사용할 것을 당부하였다.³⁵⁾

김추임, 김추길 형제의 지역적 기반의 차이는 다음 대의 혼인에서도

32) 『溪巖日錄』 무진년(1628) 1월 5일; 병자년(1636) 6월 12일.

33) 『聞韶世稿』 권9, 「畏棲菴逸稿」, <附錄>, 行狀.

34) 『聞韶世稿』 권9, 「畏棲菴逸稿」, <開湖雜詠 九節 並序>.

35) 『聞韶世稿』 권9, 「畏棲菴逸稿」, <附錄>, 行狀.

잘 드러난다. 김추임의 아들인 金聲直은 조우인의 딸, 金聲廓은 안동 권성오의 딸, 金聲翼은 朴敏行의 딸, 金聲弼은 南暄의 딸과 혼인을 하였다. 김추길의 아들 金聲厚는 金宗衍의 딸, 金聲久(1641~1707)는 權霖의 딸, 金聲裕는 權震의 딸과 혼인을 하였다. 김추임 계열이 상주권 인물과의 혼인이 중심이 된다면, 김추길 계열은 경북 북부 안동권에서 영향력이 큰 백암 金功(1540~1616), 충재 權機(1478~1548)의 후손들과 혼인을 하며 안동권에서의 기반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김추임 계열과 김추길 계열의 지역적 기반의 차이는 향촌 사회에서의 활동에서도 차이를 가져왔다. 상주의 읍지인 청대본 『상산지』에 등재된 의성김씨 김우평 계열은 김우평, 김득가, 김달가, 김을, 김추임 5명이다. 이들은 상주의 사족 명부인 향안에도 등재되어 있어 상주 사족으로서 정체성을 보여준다. 김추임의 아들은 네 명 가운데 요절한 셋째를 제외하고 모두 등재되어 있으나 김추길의 후손들은 확인되지 않는다. 상주의 기반을 계승한 김추임 후손인 金景濂, 金景淵, 金景濬 등은 향안에 등재되었을 뿐만 아니라 도남서원의 재임으로도 활동하여 17세기 중반 상주 향촌 사회에서 의성김씨의 위상을 보여준다.

주 활동 지역을 경상도 북부 지역으로 옮겼어도 상주 사족으로서 존재하던 김우평의 후손들은 김추임, 김추길 형제에 와서 지역적 기반이 나뉘며 지역 사족으로서의 정체성도 갈라졌다고 할 수 있다.

의성김씨의 상주 사족으로 위상은 18세기 중반 입향조인 김우평을 洙水書院에 제향하는 것에서 드러난다. 중동의 동쪽, 의성과 경계를 접하고 있는 단밀 지역에 위치한 속수서원은 상주목사를 지낸 孫仲暉(1463~1529)을 기린 경현사로 시작하였다. 1703년 여말선초 인물인 申祐를 함께 제향하며 서원으로 승원한다. 이후 1730년 김우평과 조정을 함께 추향하고 19세기에는 조익의 추향도 이루어진다.³⁶⁾

속수서원에 제향된 손중돈, 김우평, 조정, 조익은 상주의 단밀, 중동, 낙동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였으며 상주 인물들 가운데 낙동강을 통한

36) 송석현, 「조선시대 상주지역 서원의 동향」, 민족문화논총 81, 2022, 11~12쪽.

교유가 눈에 띄는 인물들이다. 손중돈의 선대는 예안에 있으며 자신은 상주를 기반으로 예안과 경주를 오가며 활동하였다. 김우평의 선대는 성주, 후손은 상주와 안동권을 활동 기반으로 삼았다. 조정, 조익 역시 안동권의 김성일, 성주권의 정구와의 교류가 주목되는 인물들이다. 신우는 아주신씨로 단밀과 인접한 의성을 기반으로 활동하며 역시 정구, 장현광 계열과의 교류가 활발하다.

속수서원의 운영은 풍양조씨가 중심이 되었다. 김우평과 조정이 추향이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인척 관계인 두 사람의 교유가 후대로 계승되었고, 의성김씨 김우평 계열의 기반이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여러 인물을 공동 제향하였다는 점에서 상주에서의 기반과 한계를 동시에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의성김씨 김우평 계열의 상주 이거와 활동을 통한 교유 관계는 상주 사족들 가운데 낙동강을 통한 교류의 양상을 잘 보여준다. 그리고 이는 그 터전인 중동, 낙동 지역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다.

IV. 서계 김담수 계열의 상주 이거와 정착

1. 선영을 통한 기반의 확보

김담수는 자가 台叟, 호는 서계이다. 부친은 金關石, 모친은 순천박씨 朴坦의 딸로 성주 수륜면 운동마을에서 태어났다. 형은 金聘老, 金聘年이고, 동생은 金聘祺이다.

<의성김씨 김담수 계열의 계보>

錫--龍庇--華(和)-宗師-貴孫-允釐

⇨允迪-關石-聘老

⇨聘年

⇒聘壽-廷龍-以元
⇒以亨
⇒以利
⇒以貞
⇒廷獻-以郁
⇒以彬
⇒廷稷-以泰
⇒以謙
⇒廷契-以潤
⇒以重
⇒廷堅-以健
⇒以載
⇒以命
⇒成撥
⇒洪裕承
⇒聘祺
⇒尹殷衡

김담수는 어려서 성주에 유배 온 목재李文樞(1494~1567)에게 학문을 배웠으며, 20세가 넘으면서 성주 목사로 부임한 이황의 제자 금계黃俊良(1517~1563)과 성주 향교의 교관으로 조식의 제자 덕계吳健(1521~1574)에게 학문적 영향을 받았다. 김담수의 학문적 성격은 창녕조씨 曹夢吉의 딸과 혼인을 하며 조식의 영향을 더욱 강하게 받게 된다.

처부 조몽길은 조식·이희안과 함께 세칭 ‘嶺中三高’의 한 사람인申季誠의 사위였다. 즉, 김담수는 조식의 벗으로 김해新山書院에 제향된 신계성의 외손서가 되면서 남명학파의 영향을 크게 받게 된다.³⁷⁾

김담수의 교유 관계는 성주권이라는 지역과 의성김씨라는 가문이 강하게 작용하였다. 정경세의 후손인 立齋鄭宗魯(1738~1816)가 지은

37) 김학수, 「南冥·退溪學의 교차와 절충-月潭 金廷龍과 菊園 金廷堅 형제의 삶과 학문-」, 『청계사학』 22, 2020, 22쪽.

행장에는 ‘동강 선생과는 종친척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으며 한강 정구 선생과는 道義로 사귀었다’고 하였다.³⁸⁾ 김담수의 남은 글들을 정리한 『서계일고』에는 김우옹에게 보낸 시가 몇 편 수록되어 있으며, 정구와는 아들 김정룡이 부친 묘지명의 찬술을 부탁할 정도로 깊은 관계였다.

성주를 중심으로 합천 등 경상도 중남부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김담수의 생활은 임진왜란이 일어나며 크게 변화한다.³⁹⁾ 노모를 모시고 가야산으로 피신하여 어머니를 지극히 봉양하였으며, 정유재란이 일어나자 다시 맏아들 金廷龍(1561~1619)이 수령으로 있는 예안 인근의 안동 임하현으로 피난하였다. 모친은 아들 김정룡에게 맡기고 안동의 임하현 鼎井里에 정착하여 예안을 왕래하며 봉양하였다.⁴⁰⁾ 1598년 노모가 돌아가시자 상례를 치르고,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아 상주 위수 북쪽의 중동면에 임시로 묘를 썼다. 3년상을 마치고 김담수는 여막을 세웠던 자리인 竹巖村에 그대로 살았다. 1602년 성주 선산에 성묘를 갔다가 사망하자 상주 사벌의 선영에 묻혔다.⁴¹⁾

김담수에게 있어 안동, 예안에서의 피난 생활은 짧은 기간이었지만 교유의 확장에서 큰 영향을 주었다. 이황의 제자인 예안의 月川 趙穆(1524~1606), 雪月堂 金富倫(1531~1598), 惺齋 琴蘭秀(1530~1604) 등과 교류할 수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남명학과 퇴계학을 함께 받아들이는 계기가 되었다.

김담수가 어떠한 연고로 상주에 정착할 수 있었는지는 정확하지 않다. 1598년에는 같은 의성김씨인 김우평이 개암에 터전을 마련한 후였으나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김우평의 후손들 역시 경북 북부 지역으로 피난 중이었다. 다만 모친의 묘를 상주 사벌의 선영에 묻었다는 것으로 보아 김담수 선대에서 분묘를 포함한 기반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38) 『西溪逸稿』 권3, 「附錄」, 〈行狀〉.

39) 김담수는 혼인 이후 1562년 장인 신계성이 죽자 약 10여 년간 합천 처가에서 생활하였다.(고혜령, 「西溪 金聘壽의 尙州 정착과 삶」, 『嶺南學』 62, 2017, 15~16쪽)

40) 『西溪逸稿』 권2, 「宣城雜詠序」.

41) 『西溪逸稿』 권3, 「附錄」, 〈墓誌〉.

김담수의 교유 관계는 성주권과 예안 지역의 인물들이 중심을 이룬다. 그의 활동은 대부분 성주와 함천 등지였고, 후반에는 안동과 예안에서 이루어졌다. 따라서 문집인 『서계일고』에 수록된 대부분의 글은 안동, 예안의 흔적들이다. 성주에서의 글은 남아 있지 않고, 상주에서는 활동 기간이 짧았기 때문이다. 문집에는 만사와 제문을 지은 曹應仁을 제외하면 상주권 인물의 글이 없으며, 상주에서 지은 시도 후반의 「商星諸詠」에 포함된 일부이다.

김담수는 같은 가문의 김우평의 뒤를 이어 상주의 같은 지역에 정착하였다. 하지만 상주에 완전히 터전을 내리고 기반을 쌓은 김우평과 달리 김담수는 상주에서의 기반이 명확하지 않고 생활 기간도 짧았다. 교유의 중심은 성주와 안동권이었으며 본인은 성주의 지역적 정체성이 더 강하였다.⁴²⁾ 그러나 짧은 생활 동안 그의 자식들은 상주 인물들과 다양한 형태로 교유할 수 있었고, 자신도 상주에 묻히면서 후손들에게 상주의 기반을 계승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었다. 김담수의 후손들은 이러한 교유 관계를 계승하면서도 상주의 기반을 통하여 지역 사회의 교유를 확장해 갔다.

2. 혼인과 학문을 통한 교유의 확장

김담수의 기반과 교유는 후손들에게 계승되었다. 김담수는 상주에서의 지역적 기반이 적고, 관직이나 학문적 영향도 크지 않았다. 짧은 상주 생활과 맞물려 상주 인물들과의 교유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의 후손들의 혼인과 교유를 보면 짧은 상주 생활동안 기반을 닦고 교유를 확장한 모습이 나타난다.

고향인 성주권에서부터 유지된 교유와 예안, 안동에서 피난 생활을 하며 형성된 교유가 중심이 된 가운데 만년에 생활한 상주에서 형성된 교

42) 상주의 향안에 등재된 김우평과 달리 김담수는 성주 향안에 등재되어 있다.(한국학자
료센터 영남권역센터, 상주향교 소장 『商山鄉彥錄』 上; 성주향교 소장 星州鄉案)

유의 영향이 자식들의 혼인에서 드러난다. 김담수는 아들 5명과 딸 2명을 두었다. 『義城金氏大同譜』에 의하면 첫째인 김정룡, 둘째인 金廷獻, 막내 김정건은 상주 지역에 터전을 마련하였고, 셋째 金廷稷은 숙부인 김정기의 양자로 들어가 金山 上里에서 세거하였고, 넷째 金廷契는 성주 윤동에 정착한 것으로 나온다.

첫째 김정룡은 1561년 성주 수륵에서 태어났다. 어려서 부친에게 가학을 계승하고 김우옹과 정구의 문하를 왕래하며 학문을 쌓았다. 1585년 문과에 합격하여 관직에 진출할 때에도 동방 12명 가운데 정구 문하인 黃汝一(1556~1622), 동향이자 김우옹, 정구에게 수학한 宋光庭이 포함되었다.⁴³⁾

관직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는 예안에서 수령으로 재직한 때이다. 1596년 전쟁 도중에 예안 현감으로 부임하며 부친 김담수와 조모가 안동, 예안 지역으로 피난할 수 있게 하였고, 부친의 교유 관계가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다.

김담수의 문집에는 아들 김정룡과 주고받은 편지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김담수는 전쟁에 대한 정보의 제공, 전쟁의 상황, 명군과 관군에 대한 불만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김담수는 부임 초기 김정룡에게 보낸 편지에서 조목을 찾아가 인사하고 조언을 받기를 거듭 권하고 있다.⁴⁴⁾ 이 시기 김담수가 만형과 함께 지내고 있는 넷째 아들 김정계에게 보낸 편지에는 김정룡이 주변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는 것에 대한 걱정과 조언을 하고 있다.⁴⁵⁾ 김정룡은 부친 김담수에 비해서 예안 사족들과의 교유가 깊지 않다고 여겨진다.⁴⁶⁾

김정룡의 활동에서는 상주와의 관련성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 1561년 생인 김정룡은 상주에 정착하기 이전에 태어나 선산에 기반을 둔 선산 김씨 金就鍊의 딸을 처로 맞이하였다. 학문적 스승과 동문, 혼인을 통한

43) 김학수, 앞의 논문, 2020, 103쪽.

44) 『西溪逸稿』 권1, 「書」, 〈答子廷龍 爲禮安倅 丙申〉, 〈又〉.

45) 『西溪逸稿』 권1, 「書」, 〈答子廷契〉.

46) 『月潭逸稿』 권1, 〈宣城官舍有感〉에서 김정룡은 통치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교유가 모두 성주권에서 형성되었다. 관직 생활까지 하던 상황에서 부친의 짧은 상주 체류 기간 동안 새로운 교유를 적극적으로 확장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상주 남촌 사족인 영산김씨 金彦健(1511~1571)의 상례에 만사를 보낸 것으로 보아 상주 사족들과의 교류가 전혀 없지는 않았다.⁴⁷⁾

하지만 그의 동생과 후손들은 상주권 사족과의 교유, 혼인 관계가 확대되었다. 김정현은 전주이씨 李節, 김정견은 청주한씨 韓瑞의 딸과 혼인하였다. 특히 막내인 김정견은 1576년에 태어나 만형인 김정룡과 15년 차이가 난다. 따라서 형을 통하여 부친인 김담수의 가학을 계승하면서 동시에 정구에게까지 사승 관계를 확대하였고, 상주 이거 후에는 정경세에게 입문하며 예학에 특별한 관심을 보였다. 상주 사족을 대표하는 정경세와의 사승관계 형성은 김정견, 나아가서는 의성김씨 김담수 계열의 정체성과 위상의 확립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다. 김정견이 정구와 정경세 두 사람의 문인인 것은 17세기 영남 사람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사실이었다.⁴⁸⁾

김정견의 처부인 한상은 동생인 韓瑞, 성람, 손당 등과 함께 존애원 운영에 참여한 인물이다. 청주한씨는 15세기 초 韓廉이 상주목사로 부임한 이후 상주에 세거하였으며 향사당 건립, 의병 활동에도 참여하였다. 임진왜란 때 불에 타서 사라진 상주 향청을 다시 중건한 인물도 한상의 사촌인 韓進이었다.

김정견은 그의 혼인이나 학문적 연원에서 상주 인물들과의 관계가 분명해지고 있다. 김담수가 모친을 상주에 임시 매장하고 머무르는 시기에 정경세 역시 향촌에 머무르며 존애원에서 강학을 하고, 도남서원의 건립을 주도하고 있었다.⁴⁹⁾ 김정견은 이 시기 정경세에게 학문을 배운 것으

47) 『芸亭遺集』 권2, 「附錄」, <又門下金廷龍>. ‘문하’라는 표현으로 보아 학문적 교류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김언건이 죽을 당시 김정룡은 11세로 오랫동안 유지되지는 못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48) 『商山誌』 「人物」 조에서 김정룡에 대해서는 가학을 계승하고 정구를 사사하였다고 하였고, 김정견에 대해서는 가학을 계승하고, 정구와 정경세의 문인으로 설명하고 있다.

로 생각된다.

정경세 문인으로서 상주 사회에서 김정견의 위상은 도남서원의 원장을 역임하는 것에도 드러난다. 김정견은 정경세가 죽자 한극술, 정영세와 함께 일부 상주 사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정경세의 도남서원 추향을 추진한다.⁵⁰⁾

김담수 후손들의 교유에서 특히 상주의 창녕성씨 성람 계열과의 혼인이 주목된다. 김정룡의 장남 金以元은 성람의 차남 成汝栢의 장남인 成震昇을 사위로 맞고, 김정현의 딸은 성람의 장남 成여송의 아들 成震丙과 혼인을 하였다. 성여송은 김정직의 둘째 아들인 김이겸을 사위로 맞아 두 집안은 중첩적인 혼인 관계를 이루었다.⁵¹⁾

<김담수 계열과 성람 계열의 혼인 관계>

成灋-成汝松-成震丙(김정현의 딸)

↳成震井

↳成震慶

↳成震命

↳金以謙(김정직의 차남)

↳成汝栢-成震昇(김이원의 딸)

↳成汝樞

창녕성씨 상주 입향조인 성람은 정경세와의 친분으로 존애원 운영에 참여하였다.⁵²⁾ 김정견의 처가인 청주한씨와 함께 창녕성씨는 남촌 사족 가운데 존애원과 낙사계에 뒤늦게 참여한 인물들이다. 이들과의 혼인과 정경세의 문인이라는 점은 선대의 기반이 약한 김정견이 상주에 정착하

49) 『愚伏集』 別集 권4, 「年譜」, <壬寅>.

50) 『溪巖日錄』, 「乙亥 10月 1日」

51) 『義城金氏大同譜』, 『昌寧成氏文孝公派譜』.

52) 창녕성씨는 영남의 대표적인 서인계 가문이며, 특히 성여백은 영남 내 기호학맥의 확산 계기를 마련한 인물이지만 17세기 초반까지는 이러한 분림이 명확하지 않았다. (김학수, 앞의 논문, 2008, 289쪽)

는데 큰 역할을 하였으며 도남서원의 원장까지도 역임할 수 있었다.

김정현과 김정견 형제는 상주에서의 기반을 바탕으로 교유 관계를 더욱 넓혀갔다. 상주에서는 전통적으로 낙동강에서 배를 띄우고 시회를 하였다. 특히 1622년에는 5월과 7월 두 번의 시회가 있었다. 김정룡 형제는 두 번째 시회인 7월 모임에 참석하였고, 이 모임에는 趙又新, 이전, 이준, 전식, 康應哲, 조정, 유진, 金知復, 金憲, 李希聖, 李大圭, 韓克禮, 金堦, 李元圭, 李文圭, 李身圭, 禹處恭, 丘山立, 孫胤業, 全克恒, 全克恬, 趙光靈이 함께하며 17세기 초반 상주의 대표적인 사족들이 참여하였다.⁵³⁾

상주의 인물들을 수록한 청대본 『상산지』에도 김담수, 김정룡, 김정견, 김이원, 김도빈, 김이재, 김이겸이 등재되어 있으며, 상주 향안에는 김정룡, 김정현, 김정견 형제와 그 후손들이 입록되어 있어 상주에서의 기반이 김정룡, 김정현, 김정견 계열을 중심으로 확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의성김씨는 1745년 중동면 죽암리에 김담수, 김정룡, 김정견을 제향하는 洛巖書院을 건립하였다.⁵⁴⁾ 낙암서원의 상량문은 정경세의 후손인 정종로가 짓고, 봉안문은 南必錫. 상향축은 息山 李萬敷(1664~1732)의 손자인 李承延(1720~1806)이 지었다. 18세기 상주 지역을 대표하는 인물들이 서원의 행사에 참여한 것이다.

의성김씨 김담수 계열은 김담수 본인이 상주의 기반을 굳게 확립하지 못하였으나 후손들의 혼인 관계와 학문을 통하여 교유를 확장하면서 향촌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하였고, 이를 통해 상주 사족으로서 정착할 수 있었다.

53) 『柏潭遺集』 권1 詩, <天啓二年壬戌七月既望>; 『黔澗集』 권1, 詩, <壬戌七月既望>.

54) 『商山誌』에 의하면 낙암서원의 건립은 1745년이다. 상량문을 지은 정종로는 1738년생, 상향축을 지은 이승연은 1720년생으로 건립연대에 대해서는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V. 맺음말

조선후기 상주의 의성김씨는 김우평과 김담수가 이거를 하면서 터전을 마련하였다. 김우평과 김담수는 성주 출신으로 가까운 친족 사이이며 학문적으로는 조식에 연원을 두면서도 이황의 영향도 수용하는 공통점이 있었다. 하지만 상주에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와 이주 시기에는 차이가 있었다. 김우평은 혼인을 통해 형성된 처가의 기반으로 안정적인 터전과 교유 관계를 마련하였으며 상주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었다. 김담수는 선영을 기반으로 활동하며 거주 시기도 짧았다. 이들의 기반과 정체성의 차이는 향안 입록에서 분명하여 김우평은 상주 향안에 입록되고 김담수는 성주 향안에 입록되었다.

이는 김우평과 김담수 및 후손들이 상주 사족으로 정착하기 위한 활동에서도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다. 김우평의 후손은 상주를 기반으로 혼인을 통하여 경북 북부로 활동 지역을 확장하였고, 17세기 중반에는 영남 사림을 대표하는 인물 중 한 명인 金聲久(1641~1707)가 등장하였다.

하지만 임진왜란 피난 과정에서 상주의 터전을 관리하지 못하였고, 전쟁이 끝난 후 상주에 정착한 김추임 계열은 상주에서 기반과 교유 관계를 확장하지 못하고 경북 북부의 해저로 옮기면서 상주 사족으로서의 활동과 교유는 중동 지역에 국한되는 모습을 보인다. 김우평의 속수서원 제향은 의성김씨 김우평 계열의 기반과 한계를 동시에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김담수 본인은 상주에서의 터전이 미약했으나 후손들의 학문적 사승과 혼인을 통하여 상주 사족의 기반과 교유를 확장할 수 있었다. 낙사계 사족들과의 적극적인 혼인과 정경세의 문인이라는 상징성을 통하여 상주 사족으로서의 정체성과 기반을 확립한 결과 18세기에는 가문의 인물들을 배향하는 낙암서원을 건립하기에 이른다.

의성김씨 두 계열의 활동은 낙동강을 활용하여 인접 군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강을 통한 교유로 남명학과 퇴계학을 받아들이고 전할 수

있었으며 다양한 성격의 융합이라는 조선후기 상주의 특성에 일정한 면모를 보여준다고 생각된다. 동시에 이거와 정착 과정에서의 활동에 따라서 지역에서의 정체성과 위상에 차이가 있음도 볼 수 있다. 이는 향후 상주 강안 지역 사족들의 활동을 규명할 때 하나의 전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이 논문은 2025년 02월 18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5년 02월 24일부터 03월 12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5년 03월 13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참고문헌

『開巖集』

『聞韶世稿』

『柏潭遺集』

『西溪逸稿』

『澤堂集』

『蒼石集』

『商山誌』

『商山鄉彥錄』

『義城金氏大同譜』

『昌寧成氏文孝公派譜』

설석규, 『조선시대 유생상소와 공론정치』, 선인, 2002.

이수건, 『嶺南士林派의 形成과 展開』, 일조각, 1995.

정우락 외, 『강안학이란 무엇인가』, 역락, 2003.

홍원식 외, 『낙중학:조선시대 낙동강 중류 지역의 유학』, 계명대학교 출판부, 2012.

고혜령, 「西溪 金聘壽의 尙州 정착과 삶」, 『嶺南學』 62,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17, 7~41쪽.

김미영, 『송정처사의 삶을 살다, 봉화 팔오현 김성구 종가』, 경북대학교 출판부, 2019

김성윤, 「영남의 유교문화권과 지역학과의 전개-안동권·상주권·성주권을 통해 본 영남학과 사육체계의 지역적 특징과 그 전승과정에 나타난 문화 양상을 중심으로-」, 『朝鮮時代史學報』 37, 조선시대사학회, 2006, 141~179쪽.

김정은, 「17세기 예안 사족 김령의 교유 양상」, 『조선시대사학보』 70, 조선시대사학회, 2014, 239~269쪽.

김학수, 「17세기 嶺南學派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8.

김학수, 「南冥·退溪學의 교차와 절충-月潭 金廷龍과 菊園 金廷堅 형제의 삶과 학문-」, 『청계사학』 22, 청계사학회, 2020, 87~136쪽.

- 설석규, 「강안학파의 실학적 풍모를 지킨 徵士-西溪 金聘壽」, 『선비문화』 12, 남명학연구원, 2008, 92~111쪽.
- 송석현, 「17세기 상주지역 사족의 동향」, 『嶺南學』 27,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15, 321~367쪽.
- 송석현, 「조선시대 상주지역 서원의 동향」, 『민족문화논총』 81,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22, 126~162쪽.
- 송석현, 「경주손씨의 상주 정착과 손만웅의 활동」, 『한국서원학보』 18, 한국서원학회, 2024, 235~263쪽.
- 정우락, 「강안학과 고령 유학에 대한 시론」, 『퇴계학과 한국문화』 43,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2008, 39~94쪽.
- 정우락, 「서계 김담수 문학에 나타난 ‘가족’과 그 의미」, 『嶺南學』 62,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17, 43~79쪽.
- 정우락, 「서계 김담수의 전쟁체험과 그 문학적 대응」, 『嶺南學』 10,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06, 373~412쪽.

Abstract

Uiseong Kim clan of Sangju in the 17th century Resident and settlement

Song, Suk-hyun

In this article, the two families of Uiseong Kim clan(義城金氏) who settled in Sangju(尙州) from the late 16th to the 17th centuries were investigated, and their subsequent activities. During the Joseon Dynasty, Sangju was the main point of transportation through Yeongnam-daero and the Nakdonggang River. They exchanged with Hoseo through the land route and exchanged with each region of Gyeongsang-do through the Nakdonggang River. As a result, Sangju was able to communicate with four families of various characteristics, and was characterized by communication and convergence.

This characteristic is more prominent in the area along the Nakdonggang River coast in Sangju. Through the Nakdonggang River, they also exchanged with the Andong area to the north and Seongju area to the south, Jinju area, and Gyeongju area. The four tribes that settled in this area moved to Sangju through the river and settled there, and expanded their friendship through the river. This pattern was examined through the activities of the Uiseong Kim family among the four tribes that settled in the Sangju riverbank area.

The Sangju Uiseong Kim clan consists of the Kim Woo-Gong family and the Kim Dam-soo family, and they are close relatives from Seongju, and academically, they both had something in common that included the influence of Yi Hwang while originating in breakfast. However, there was a difference between the moment to lay the

foundation for Sangju and the timing of the migration. Kim Woo-Gong established a stable base and exchange relationship based on his in-laws' family formed through marriage, and was able to actively work in Sangju. The period of residence for Kim Dam-soo was short because he was based in Seonyeong. Therefor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angju's foundation and exchange was limited.

The descendants of Kim Woo-goong and Kim Dam-soo expanded in their own way, inheriting the foundation of their predecessors and the relationship of companionship. The foundation of the resident was weakened as the center of activity of the Kim Woo-goong family moved to the northern part of Gyeongbuk after the evacuation life caused by the Imjin War. After that, they were able to recover and settle down as the resident family, but there were several limitations in the relationship and expansion of their status. On the other hand, the Kim Dam-soo family strengthened its weak foundation through academic relationships and marriages, and was able to expand the relationship to the resident family society.

keywords :

Kim Woo-Gong, Kim Dam-su, Sangju(尙州), Uiseong Kims clan(義城金氏), friendship, marriage, near the river(江岸)

